

폐업 소상공인 40% “3년 못 버텨”...평균 1억 빚

ECONOMY

2025년 3월 20일 목요일

중기중앙회 폐업 실태조사 호남권 평균 '6.6년' 영업 주요 원인은 수익성 악화

닫긴 '2025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지난 2021년 이후 노란우산 폐업공제금을 지급 받은 폐업 소상공인 82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호남권은 경우 전체의 18%인 148개사가 조사에 포함됐다. 내용을 보면 호남권에서 창업 후 폐업까지의 평균 영업기간은 '6.6년'으로 나타났다. 1년 이상~3년 미만인 39.9%가 가장 많았다. 10년 이상이 21.6%로 다음을 이었고, 5년 이상~10년 미만(18.2%) 등 순이다. 반면 5.4%는 1년도 채 안 돼 문을 닫

호남지역 소상공인의 창업부터 폐업까지의 영업기간은 평균 6.6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이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창업에 나섰지만, '수익성 악화, 매출부진'으로 인해 결국 폐업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았다. 창업에 나선 이유(복수응답)로는 '생계유지'(71.6%)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직장 생활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본인의 적성과 경험을 살리기 위해'가 각 45.9%, 41.9%로 뒤를 이었다. 이전 창업 및 폐업 횟수는 2.2회, 1.8회로 조사됐다. 폐업한 이유(복수응답)는 91.2%가 '수익성 악화, 매출 부진'을 꼽았다. '적성·가족 등 개인 사정'(33.8%), '신규 사업 창업 또는 준비를 위해'(22.3%) 등 순이다. 수익성 악화 및 매출 부진 원인(복수

응답)으로는 '내수부진에 따른 고객 감소'가 51.1%로 직격탄이었다. 또 '인건비 상승'(48.1%), '물가상승으로 인한 원재료비 부담'(47.4%), '입대료·관리비 등 고정비용 상승'(41.5%) 등 고물가 시대를 반영한 예로가 가장 컸다. 평균 월 매출액은 4556만원으로 집계됐으며,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이 25.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500만원 미만'이 24.3%를 차지, 어려운 시대상황을 반영했다. 폐업을 결심한 시점 기준 평균 부채액은 9878만원으로, '1억원 이상'이 33.6%로 최다를 차지했다.

폐업 비용은 평균 1802만원이 소요됐으며, '500만원' 미만이 40.5%로 가장 많았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생산의 주체이자 소비의 주체이기도 한 소상공인의 급격한 붕괴는 복지비용 등 우리 경제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그만큼 커진다는 의미"라며 "정부의 재교육 강화와 전직장려금 확대를 통해 폐업 소상공인들의 제조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한다면 소상공인 간 경쟁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리튬이차전지 기술 세미나 열려 광양시·GIST, 연구동향 등 공유

광양시는 최근 시청 시민홀에서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공동으로 리튬이차전지 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광양시와 GIST 간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고, 이차전지 산업의 최신 연구 동향과 기술 발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포스코퓨처엠, 포스코빌라리튬솔루션, 포스코HY클림페탈, ㈜광양이앤에스 등 이차전지 관련기업과 전남 테크노파크(TP),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등 유관기관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김형진 GIST 명예교수는 '리튬이온전지: 전기자동차 배터리 산업과 미래기술'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김 교수는 "리튬이차전지 기술은 미래 에너지 산업의 핵심이며, 광양시는 국내 유일의 이차전지 소재 전주기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며 "광양시와 협력해 혁신적인 배터리 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kjin@gwangnam.co.kr

윤시탁 나전 대표이사·이성규 아르네코리아 대표이사 '상공의 날' 산업포장 영예...혁신 선도

제52회 상공의 날을 맞아 윤시탁(㈜나전 대표이사)과 이성규(아르네코리아 대표이사)가 산업포장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19일 광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이날 대한상의에서 열린 제52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지역 기업인과 근로자 8명이 경제 성장 및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포장 2명, 대통령 표창 1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4명,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표창 1명 등을 수상했다.

산업포장은 ㈜나전 윤시탁 대표이사와 이성규 아르네코리아 대표이사가 이름을 올렸다. 산업포장은 산업 개발과 발전에 기여하거나 실업에 힘써 그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된다.

윤시탁(㈜나전) 대표이사는 자동차용 플라스틱 내외장재의 신기술 개발 및 공정혁신을 통해 업계를 선도했다는 평가다. 현대차와 기아에서 최우수 품질 5스타를 획득하는 등 국내 자동차의 세계시장 선결과 부제품업 발전의 밑거름 역할을 인정받았다.

이성규 아르네코리아(주) 대표이사는 국내 최초 대형 유통매장용 내장·냉동



윤시탁 대표 이성규 대표

시스템에 자구온난화지수(GWP) 1단계 CO2 냉매를 적용하고, 콜드체인을 인버터 냉동기에 과냉각 시스템을 도입해 주목받았다. 이를 통해 기존 제품 대비 각

17%, 20% 소비전력이 감소했다. 대통령 표창은 김훈 한국그린푸드 펄프㈜ 부사장이 수상했다. 대용광수중 펄프분야에서 독보적 기술력으로 60여개국 이상 수출, 세계시장을 개척

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은 허진속(㈜태양신호시스템 대표, 김성석 동국성신㈜서부사업부 상무, 조대훈(㈜신성테크 이사, 김성은(㈜엘에스티 책임 매니저)에게 돌아갔다.

대한상의 회장 표창은 지역 내 좋은 일자리 생태계 조성과 경제 활성화 사업을 기획·추진한 김노진 광주상의 팀장이 수상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



농협 광주본부서 서창농협과 19일 광주 서구 풍암동 에담몬테소리유치원에서 유아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우리 쌀 소비 확대를 위한 '우리 쌀 맛있는 탐험대'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농협 광주본부, '우리 쌀 맛있는 탐험대' 운영 유아 대상 쌀알 관찰놀이·간식 만들기 등 체험

농협 광주본부는 서창농협과 19일 광주 서구 풍암동 에담몬테소리유치원에서 유아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우리 쌀 소비 확대를 위한 '우리 쌀 맛있는 탐험대'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날 행사는 아이들이 직접 보고, 만지고, 맛보며 우리 쌀의 우수성을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우리 쌀로 만든 영양간식 만들기 아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우리 쌀 소비 확대를 위한 '우리 쌀 맛있는 탐험대' 프로그램을 진행해 아이들이부터 호응을 얻었다.

또한 학부모들에게는 성장기 아이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쌀밥 중심의 균형 잡힌 식단 정보를 제공하며, 우리 쌀의 영양학적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현호 농협 광주본부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아이들이 우리 쌀과 더욱 친숙해지고 건강한 식습관을 기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흥미로운 활동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우리 쌀 소비 확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안전보건 경영방침 선포 광양경제청, 5대 과제 추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19일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보건 경영방침 선포식'을 가졌다.

이번 선포식은 안전 최우선 경영 목표를 반영한 경영방침을 공식 발표하고 경제 임직원들의 책임의식과 실천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경제청은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립,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제거, 도급 운영 위탁사업과의 상생협력 강화, 비상상황 대응 역량 제고,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의 책임 의무 이행 등 5대 실천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재해 발생시 대응 절차 및 유사 사례 중심의 실무 역량 강화교육 등을 진행 현장 대응 능력도 높인다.

구충근 광양경제청장은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해 안전 문화를 선도하고 국내외로부터 신뢰받는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호남권 교통안전 종합대책 수립 의산청, 사고 예측 시스템 구축

의산지방도관리청은 선제적 안전관리를 첨단기술 도입을 통한 호남권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을 목표로 '2025년도 호남권 교통안전 The SMART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교통사고 및 보행자 교통사고 비중이 높은 호남권의 특성을 반영해 취약구간 시설개선, 교통사고 사전예측 시스템 구축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대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SMART 종합대책은 각 Safety(안전 강화)·Modernization(디지털 전환)·Alliance(협력강화)·Responsiveness(신속대응)·Transmission(정보공유)영문의 첫 글자를 조합한 것이다.

교통안전 종합대책은 공공기관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외부기관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 적재적소에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또 실시간 교통상황 알림서비스(카카오톡)를 통한 쌍방향 소통을 구현해 참여형 소통대책을 마련하고 교통안전 쿼즈, 공익광고 송출, VMS 표어 공모전 등 교통안전 의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 병행한다. 송대용 기자 sdw0918@

대한민국항토명품협회-광주디자인진흥원 업무협약식



광주디자인진흥원은 19일 청사 회의실에서 대한민국항토명품협회와 지역 공예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디자인진흥원, 공예산업 활성화 '은 힘' 항토명품협회와 협약...연구개발·제작 등 협업

광주디자인진흥원과 항토공예협회인(사) 대한민국항토명품협회(협회장 조준석)가 지역 공예산업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은다.

광주디자인진흥원은 19일 청사 회의실에서 대한민국항토명품협회와 지역 공예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문화예술과 전통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협력사업 발굴 및 운영, 디자인 및 전통문화분야 연구개발 및 제작 등을 위한 협업, 인적·물적 자원 교류 및 공유, 각 단체 사업의 상호 홍보 및 마케팅 등의 분야에서 협력한다.

특히, 이미 개발된 우수공예문화상품을 교류하고 상호 홍보할 수 있도록 협의에 나설 예정이며, 지역에서 매년 하반기 개

최되는 최대규모의 공예 박람회인 '빛고을랜드메이드페어'에서도 우수한 전통공예상품을 함께 선보인다.

또 상호간 학술행사와 심포지엄 등에서 인적·물적으로 상호 협력이 나서면서 양 기관이 축적한 그간의 연구 성과들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모 광주디자인진흥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협력해 그동안의 성과를 집성하고 공예의 잠재력이 확장되길 바란다"며 "오랜 시간 디자인·공예 분야와 전통문화 분야에 앞장서 온 기관들이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해 나가면서 지역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예문화와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공공조달 파트너십데이' 연 6회로 늘린다

광주조달청, 조달기업 판로 확보 중점...4조2000억 집행

광주조달청이 지역 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해 수요기관이 참여하는 '공공조달 파트너십데이'를 확대한다.

광주지방조달청은 올해 중점과제인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에 맞춰 조달기업과 공공기관 등 수요 기관을 연결해주는 '파트너십데이'를 지난해 4회에서 6회로 늘린다고 19일 밝혔다.

협약기관인 전남개발공사와 광주도시공사, 광주전남중기청과 공동으로 공공구매 박람회를 열어 최근 경기침체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조달기업을 돕는다는 구상이다.

현재 광주와 전남지역에서는 기업 4만

3000여곳이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 생산한 제품과 자재, 시설 등을 조달청을 통해 다양한 공공기관에 공급하고 있다.

광주조달청은 또 광주·전남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조달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지역 내 산단이나 농공단지를 방문, 맞춤형 컨설팅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찾아가는 공공조달 길잡이 서비스도 최소 월 1회 추진한다.

이와 함께 도자기, 공예품, 식기 등 지역 특성을 살린 전통 특산품과 상품화가 가능한 지자체의 자연 휴양림, 농촌체험마을 등 여행서비스 상품의 조달시장 진

입에도 박차를 가한다. 각종 간담회와 기업방문 등 조달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책을 제시하며, 불합리한 조달 제도의 규정과 지침을 바로잡는 이른바 '규제 리셋'도 중점 추진한다.

한편 광주지방조달청은 올해 조달사업 규모를 4조2613억원으로 확정, 집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4조1495억원)보다 1118억원(2.7%)이 증가한 규모다.

특히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공공 기관을 중심으로 상반기 조기 집행에 매진해 53.7%인 2조2897억원 이상을 집행하기로 했다. 과별도 자원 전담반을 구성해 교육청, 지자체 등 대형사업 발주기관 방문 및 협조를 요청하고, 선금 지급 확대 등 특례제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한전,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 성과 쑥쑥

작년 하반기 구입전력비 2000억 절감

한국전력은 지난해 4월부터 운영한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를 통해 약정량 700MW를 확보, 작년 하반기에 약 2000억원의 구입전력비를 절감했다고 19일 밝혔다.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는 전력 계통 고장으로 주파수가 하락하는 등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전에 계약된 고객의 전력 공급을 즉시 차단해 나머지 전체 계

통을 안정화하는 제도다.

한전은 계약유지 및 부하차단 시 정전 리스크 감소에 대한 보상으로 연 1회 kW당 1320원의 운영보상금을 지급하며, 실제 부하를 차단하는 경우 고객의 영업손실에 대해 kW당 9만8400원의 동차 보상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 제도는 이미 설치된 변전소를 활용함으로써 투자비가 추가되지 않고, 시행 즉시 발전계약이 완화

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한전은 이 제도 시행으로 동·서해안 지역의 발전 계약이 약 1.5기GW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또 저비용 발전기를 추가로 운전하면서 작년 하반기 구입 전력비 절감액이 2000억원에 달해 매년 4100억원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구입 전력비 절감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흡수해 국민 부담 완화로 이어진다. 아울러 전력 계통 운영 측면에서는 전력 계통 고장 시 주파수 하락 방지에 따른 안정성을 제고해 광역 정전 예방 및 재생에너지 수용성 향상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승홍 기자 photo25@